

촛불=메시지, 사람=미디어

김원제 유프러스연구소장 · 언론학박사

한손에는 촛불, 또 다른 한손에는 캠코더 혹은 디카를 들고 광장을 누빈다.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으로, 휴대전화 영상으로 현장을 생중계한다. 스스로를 취재한, 편집되지 않은 ‘생’ 영상이 온라인에서 그대로 중계되고 네티즌은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목격한다. 길거리 저널리즘, 모바일 저널리즘이다. 휴대 저널리즘, 1인 저널리즘이다.

촛불이라는 메시지가 사람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2008년 여름, 대한민국의 풍경이다. ‘미친 소’ 사태가 만들어낸 가히 혁명적 미디어 현상이다. 새로운 신드롬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참여·공유·개방의 2.0이념을 직접 체험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미디어 상황은 새로운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여 소녀들의 촛불에서 시작된, 미디어 세상의 변화모습을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노트북 들고서...

새로운 현상의 시작은 단연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다. 그 옛날 그리스의 시민토론장이었던 아고라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되살아나고 있음이다. 토론방 ‘아고라’에서는 하루 수천 건 이상의 토론이 벌어진다. 아고라에서 광우병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고 시위에

관한 의견이 조직된다. 어떤 뉴스속보 보다 빠르고 어떤 커뮤니티보다 끈끈하다. 촛불시위 현장이 생중계 되고 집회소식이 공유되고 네티즌의 다양한 논리와 의지가 피력된다. 집회 현장의 사진과 영상이 시시각각 올라온다. 그 중에는 경찰의 폭력을 생생하게 포착한 사진과 광우병과 현 정권에 대한 비판 패러디 이미지도 올라와 네티즌의 공분을 자아낸다. 아고라의 글들은 기자가 아닌 직접 시위하는 네티즌이 생생한 경험담을 쏟아내기 에 그 속보성과 현장성이 뉴스기사보다 더 빠르고 생생하다.

휴대용PC와 캠코더, 무선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기본 장비만 갖추면 누구나 현장에서 생중계를 할 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을 쓰고 웹캠을 이용해 생중계를 하는 BJ(Broadcasting Jockey)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개인이 채널을 만들어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아프리카’에는 인터넷방송의 누적 시청자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 한 동안 침체기에 있던 인터넷신문들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촛불집회 인터넷 생중계에 대해 자발적 시청료를 모금해 8일 만에 1억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시민권력이 보수언론에 영향력 행사

보수언론은 적어도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제설정력을 상실했다. 2008년 5월 대한민국 국민은 거리로 나와 여론 형성의 중심축이었던 언론, 그 중에서도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에 대한 불신을 강화



한손에는 촛불, 또 다른 한손에는 캠코더 혹은 디카를 들고 광장을 누빈다.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으로, 휴대전화 영상으로 현장을 생중계한다. 스스로를 취재한, 편집되지 않은 '생' 영상이 온라인에서 그대로 중계되고 네티즌은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목격한다. 길거리 저널리즘, 모바일 저널리즘이다. 휴대 저널리즘, 1인 저널리즘이다.

게 표출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배후 세력' 운운하며 촛불문화제의 불법성을 강조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들의 관심은 정부의 대처 방안, 여야 공방, 시위 진압 장면에만 모아진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광우병 문제 보도 태도가 달라진 것이 보수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결정적 요인이다. 국민적 관심사를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관점이 분명한 이유 없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뀐 것이다. 보수언론의 이러한 이중적 보도 태도는 사안의 진실성과 매체의 신뢰성과 직결되면서 국민의 불신감을 증폭시켰다. 급기야 'vCJD' (조선, 중앙, 동아의 앞 이니셜을 따 크로이펠트 야콕병, 즉 인간광우병만큼 우리 몸에 해롭다는 의미)로 불리는 굴욕을 당하고, 평생구독거부 선언과 같은 시민운동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의 광고주 압박으로 인해 이들 신문에 대한 광고 포기 의사를 밝히는 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는 시민 모금에 의한 의견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인터넷 동호회 등 개인적 관심사로 모인 네티즌에 의한 자발적 운동이다. 경제권력, 정치권력의 권세를 시민권력이 대체하고 있음이다.

촛불이 2.0의 미디어 패러다임 열어

촛불집회는 그야말로 미디어적 사건이다. 촛불집회 내내 거리에선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카메라를 든 시민들이 독립적 미디어의 역할을 하며 기성 언론에 뒤지지 않는 취재의 힘을 보여준다. 1인 미디어들은

제도권 언론이 외면해왔거나 접근하기 힘든 현장의 사각지대를 생생하게 전하며 기성 언론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웹2.0의 참여형 인터넷문화가 여론의 흐름을 정반대로 바꿔놓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방된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콘텐츠까지 생산해내는 2.0미디어 지형인 것이다. 2.0미디어 지형은 아날로그 언론권력의 쇠락을 이끌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컴퓨터를 일상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디지털 시민이 보수언론의 거짓을 찾아내 바로 잡고 있다. 그 역겨운 왜곡을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조중동 퇴출'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시민들이 새 시대를 열고 있음이다.

언론은 통제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며 이제는 권력자가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기에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채널과 미디어가 너무 많고, 다양하고, 빠르다. 아고라를 통해 등장한 시민 저널리스트들은 재치, 발랄함을 무기로 전통적 저널리즘의 규범을 해체시키며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지배언론의 커뮤니케이션이 민중의 삶과 거리가 있었던 반면, 아고라에 등장하는 언어는 개인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성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던 개인들은 촛불집회를 거치며 스스로 언론이 되는 동시에, 자신이 확보한 정보를 근거로 기성 언론보도를 평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이지 않는 사실, 진실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보수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팩트가 있음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제 기성 언론은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놓고 타 언론사가 아닌 개인과 경쟁해서 이겨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모두가 기자이고 무엇이나 미디어가 되는 세상 열려
이제는 정말 모두가 기자이다. 시민이 기자이고, 세상이 바로 미디어인 것이다. 기자와 취재원의 역할 구분이 무너졌다. 시민 기자는 스스로를 취재한다. 무엇이나 미디어고, 어디서나 미디어이며, 누구나 미디어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인터넷은 이른바 시민참여 저널리즘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단순한 뉴스 수용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조적인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해준다. 시민의 참여는 제보나 고발에 의해 의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참여채널이 확대되고 네트워크에서 정보공유, 표현의 자유는 강화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소수에 집중됐던 언론 권력이 다수의 시민에게 분산되는 과정이다. 이번 촛불집회 과정을 통해 이제 시민은 뉴스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직접 뉴스가 되고 뉴스를 생산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2.0 미디어 상황이 아직은 공고한 틀을 갖추지는 못했다. 전통적으로 언론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프로세스를 갖는다. 그 과정에서 취재와 사실 확인을 위한 단계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실 확인과 기사작성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부이지만 포털사이트의 등장은 시민기자들이 포털에서 떠도는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를 야기한다. 네트워크사회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가치를 침해할 위험도 잉태한다. 네트워크의 복제성과 상호작용성, 정보공유 등의 특성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예기치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뿔녀 사건, 연예인 X파일, 나훈아

사건, 성수여중 사건 등은 이러한 문제제기가 기우가 아님을 역설한다.

그럼에도 걱정할 일은 아니다. 모래알처럼 엮인 네티즌의 힘이 모여져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집단지성과 집단 참여로 정화작용 가능

2.0세대는 월드컵을 겪으면서 광장의 문화를 경험했고 인터넷에 익숙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포털 뉴스 등을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로 퍼가거나 링크를 걸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대다. 기성세대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보의 채널이 잘게 쪼개져 분산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트워크 법칙에 따라 링크를 타고 넘으면서 유용한 콘텐츠가 선별되고 제품의 비율로 확산된다. 완전 공개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류 언론 못지않은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인터넷 안에서 뉴스는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또한 사실의 정확성, 의견의 진실성은 글 자체, 댓글 하나를 통해 규명되지 않는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반박하고 주장하면서 사태의 진실성에 다가간다. 주류 언론의 보도는 전문적 식견을 갖춘 기자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지만, 인터넷의 진실은 집단지성과 집단적 참여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다.

우리는 좀 더 비판적인 정보이용자가 되면 될 뿐이다. 인터넷 공간은 그 속성상 때때로 조작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의해 휘둘릴 여지가 없지 않다. 허나 그러한 경우 에라도 시민들은 스스로 증거를 찾아내고 토론을 거쳐 사실 여부를 규명한다. 시민의 소통을 통해 진실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다. 다 음의 아고라는 시민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광장의 작은 촛불이 모여 온라인에서 진실을 밝히는
햇불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이다. 하여 인터넷은 인터넷이다. 사람 인(人), 서로 기대어 지탱해 주는 형상의 본래 의미를 21세기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구현하고 있음이다. ☺

